



양돈업 허가상한선 모돈 2천두로 확대

정부는 지난 4월 27일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행정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양돈업의 등록, 허가 규모 및 허가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양돈업에 참여를 그동안 금지하여 왔던 대기업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발표하고 관계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령에 의하면, 양돈업 등록 규모는 현행 모돈 200두에서 500두로, 허가규모는 500두에서 1천두로, 허가상한선은 모돈 1천두에서 2천두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축산업 참여금지 대기업 기준 중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자를 삭제하여 양돈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부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이번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허가상한선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축산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계열화 생산 사업을 위하여 사육중인 모돈, 축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사육하는 모돈, 축산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등록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모돈의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축산법 개정령을 개정하면서 대기업 참여의 허용과 함께 사육규모의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의 개선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양돈산업의 합리화 즉, 사료 및 사료원료의 관세 및 부가세의 영세율 적용, 유통구조개선, 장기적 축산발전 대책의 실효성 지속 등 정부 노력 개선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 가 생각된다.

이와관련하여 현행 소득세 면세 기준 사양두수가 모돈 200두 미만(90kg 성돈기준)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의 상향조정이 병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전염병 가축 신고 의무화

농림수산부는 지난 5월 8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 제2종 가축 전염병 중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가축전염성 질병을 소전염성기관염, 타이레리아병, 바베시아병, 말 전염성유산, 아나플라즈라병, 닭티프스병 등 6종으로 정하고, 도지사가 살처분 명령할 수 있는 대상을 브루세라병, 결핵병, 돼지콜레라, 뉴캐슬병, 돼지오제스키병에 걸린 가축 등으로 규정했다.

또 소, 말, 돼지 등의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전에 사전 신고해야 되고,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동물검역소장이 정하도록 개정하였다.

또 농림수산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는 7월 6일부터 45개의 법정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신고하지 않는 사람은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등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가축소유자와 관리자 및 운송업자가 전염성질병에 걸린 가축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징수하게 되었다.

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적용가축도 현행 13종류에서 사슴과 토끼를 추가, 15종류로 확대하였으며 정부에서는 향후 이들 15종류에 대한 전염병 방역을 실시하게 된다.

정부, 사료검사제도 영양 평가로 개선

정부는 오는 97년까지 현행의 사료검사제도를 선진국 수준의 검사체계와 상응하는 사료검사제도로 개선하여 사료의 품질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고급의 양질 축산물을 생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행의 사료검사체계로서는 안전성 있는 고급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맹점이 있다고 보고, 현행의 사료성분 위주의 검사에서 사료영양평가로 전환하여 사료 품질을 향상시키고, 유해물질범위를 확대하여 사료의 안정성 및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내 축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년부터 강화되는 국내 축산물의 유해물질의 잔류검사시 해당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사전오염원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분위주에서 영양위주로 검사기준 개선
- 유해물질 범위 확대로 생산되는 사료의 안정성 확보
- 잔류농약 17종의 사료 함유 허용한계 설정
- 항생제 등 62종의 허용 기준한계 마련

육류 유통 기한 WTO 제소

미국은 지난 4월 28일 한미간 마지막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지난 3일 우리 나라의 농수산물 검역 제도에 이어 육류 유통 기한 문제와 관련하여 「WTO」에 제소하였다. 또 제네바 주재 미국 무역 대표부 대사의 공안을 통해 한국의 식품 유통 기한 특히 육류 유통 기한 연장 문제와 관련하여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양국간 협의를 갖자고 우리 정부에 요청해 왔다고 지난 8일 정부의 한 관계자가 밝혔다.

WTO 분쟁 해결 절차에 의하면, 미국의 협의요청일부부터 30일 이내에 양자 협의를 개시하고, 60

일 이내에 협의를 종료하게 돼 있으며, 협의 실패시 WTO 분쟁 해결 소위원회(panel:패널) 설치를 요청하고 이 패널은 WTO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설치되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9개월까지 연장 가능) 이내에 조사를 종결, 판정을 내리게 된다. 패널보고서는 패널판정에 불만을 가진 당사국이 상소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는 만장일치로 기각되지 않는 한 60일 이내에 자동으로 채택되며, 상소 의사를 밝힌 경우는 상소 기구에서 재검토해 60일(최대 90일) 이내에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되고 상소 기구의 판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패널보고서가 채택되면 패널의 권고 사항을 수락, 이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상대국의 보복 조치(WTO 협정 상의 양허정지 및 기타 의무 정지)가 허용되게 된다. 하지만 보복 조치는 원칙적으로 분쟁 분야에 국한되어야 하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을 경우, 타분야에 대한 보복 조치도 가능하게 된다.

즉, 미국이 승소할 경우 분쟁 품목인 육류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한국의 육류의 대미 수출이 미미한 만큼 효과를 볼 수 없게 되며, 미국의 대한민국 육류 수출에 상응하는 규모의 보복관세를 자동차나 반도체 등 다른 분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미국, 금년 옥수수 생산 15% 감소 예상

미국 농무성(USDA)은 지난 11일 올 들어 처음 「95년/96년 사료곡물수급예측자료」를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금년도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미국내의 7.5% 경제제한 정책으로 인한 옥수수 재배면적이 전년도의 2,951만 정보보다 178만 정보가 줄어들었고, 정보당 생산량 또한 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94년도의 256,630천톤보다 15% 적은 218,450천톤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 발표했다.

또 95년/96년도의 곡물에 대한 미국내 소비 및 수출량이 전년보다 약간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나 수출량을 포함한 총소비량이 총생산량보다 1,5,240천톤이 많은 233,690천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95년/96년도 말의 옥수수 재고는 총소비의 14% 수준에 불과한 25,360천톤으로 감소될 뿐만 아니라 94년/95년도 말의 재고 40,340천톤에 비하여 43%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 USDA는 95년/96년도 옥수수 농가수취가격은 94년/95년의 톤당 88.65달러에서 11% 상승된 98.5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수입가격의 상승과 함께 사료가격의 상승이 예상되어 전체생산비에서 사료비가 60% 이상을 점하는 국내 양돈업은 더욱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4년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 14.2kg

농림수산부가 추정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14.2kg으로 전년보다 0.15% (0.3kg)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1인당 총육류 소비량은 '91년 21.7kg, '93년 24.7kg에서 '94년 25.8kg으로 1.1kg 증가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연간 총육류 소비량도 '91년 940.6천톤에서 '93년에 1,086.9천톤으로, '94년에는 이보다 61.1천톤(5.62%) 증가된 1,148천톤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95년 국민 1인당 육류예상 소비량은 지난해보다 1.5kg(5.8%) 늘어난 27.3kg으로 추정되며, 이중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예상 소비량은 0.8kg(5.63%) 증가된 15kg대가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 '95년 연간육류 총소비 예상량은 전년보다 78천톤 증가된 1,226천톤으로 예상되며, 이중 쇠고기는 전년보다 7.77% (21천톤), 돼지고기는 전년보다 6.63% (42천톤), 닭고기는 전년보다 6.12

% (15천톤)가 각각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년 도축두수 월 14,796두 감소

지난 3월 한달동안 전국에서 도축된 돼지두수는 전월보다 무려 27.2%가 증가된 875,873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중 도축된 돼지중 암돼지는 전체 도축두수의 50.6%인 44,286두가 도축되어 전월보다 27%가 증가되었고, 수돼지는 전체 도축두수의 49.4%인 433,005두가 도축되어 전월보다 27%가 역시 증가되었다.

3월 전국 도축두수는 전년동기 대비하여 98.7%의 수준이며, 이 중 암돼지는 전년 동월대비 1.9%가 늘어난 반면 수돼지는 오히려 4.4%가 감소, 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년 3개월동안 도축된 돼지 총마리수는 2,444,604두로 전년 동기의 2,488,991두 보다 44,387두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월평균 14,796두가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 도축두수를 살펴보면, 지난 3개월동안의 암돼지 도축두수는 전년동기의 도축두수 1,226,877두와 비슷한 1,227,757두가 도축된 반면 수돼지는 전년동기의 1,262,114두보다 무려 45,267두가 감소된 1,216,84두로 나타나 월 평균 수돼지 도축두수는 15,089두가 전년 동기보다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돈농가, 축산분뇨처리 시설 설치율 91%

우리나라의 축산분뇨처리 시설의 설치율이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4월 26일 발표한 「'94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현황」에 따르면, 설치대상농가 78,184 개소(간이대상 포함) 중 55,796개소가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71.36%의 설치율을 나타냈다.

축종별로 살펴보면, 소는 50,030개소 중 33,031개소가 설치되어 66.02%의 설치율을 보였고, 돼

지는 21,660개소 중 18,392개소에 84.9%의 설치율을, 닭은 6,494개소 중 4,373개소에 설치하여 67.33%의 설치율을 각각 나타냈다.

특히 돼지의 경우, 허가대상 농가 중 설치대상 농가 1,955개소 중 1,939개소가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99.2%의 설치율을 보였으며 이들 설치농가가 주로 이용한 축산분뇨처리법을 살펴보면 활성오니법 180개소, 저장액비화법 694개소, 퇴비화법(퇴비화 시설은 건조장, 퇴비사, 비료화시설을 의미함), 425개소, 톱밥축사법 219개소, 정화조법 236개소, 톱밥토양여과법 59개소, 기타의 처리방법으로 126개소가 각각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돈업 신고대상 농가 중 설치대상농가 10,960개소 가운데 9,842개소가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완료하여 89.8%의 진척율을 나타냈으며, 이들 농가들이 주로 사용한 방법으로는 활성오니법 321개소, 저장액비화법 3,492개소, 퇴비화법 1,034개소, 톱밥축사법 1,226개소, 정화조법 2,901개소, 톱밥토양여과법 157개소, 기타의 처리방법 677개소에 각각 설치, 운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종돈수입 741두에 달해

종축개량협회가 지난 14일 밝힌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당초 수입배정했던 종돈 3,000두 중 지난 5월 6일 현재 741두가 수입 추천되어 24.7%의 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된 종돈 741두 중 암컷이 650두, 수컷이 90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수입국은 영국 186두, 미국 156두, 덴마크 399두로 나타났다.

또 5월 6일 현재 동물검역소에서 검역 중이거나 검역 대기 중인 종돈은 240~250두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월 6일 현재 총 17개 업체가 종돈을 수입하였으며, 이중 덴마크 SEA와 연결된 한국덴브레드(대표 백동제) 351두, 영국 PIC와 연결된 한국 PIC(대표 이치한) 186두를 각각

수입, 이들 두업체가 수입한 종돈물량이 전체 수입량의 72.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소 및 학계 등에서 수입한 경우는 김해 AI센타 3두, 연암전문대학 35두의 단지 두건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 사육규모 점차 전업화 추세

농림수산부가 발표한 '95년 1/4분기 가축사육 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돼지의 호당 사육두수가 114.8두로 지난해 89.5두에 비하여 28.3%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돼지 사육마리수는 585만3천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12만5천두)가 증가되었으며, 지난 12월에 비하여 1.7%(10만7천두)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육가구수는 51,000가구로 전년 동기에 비하여 13,000가구가 줄었으며 지난 12월말 54,000가구에서 무려 3,000가구나 감소되었다.

오제스키로 종돈 공급 차질

지난 4월 18일 정부가 전국에 오제스키병 발생 주의보를 발령하고, 오제스키병 백신을 허용하는 등의 오제스키병 방역대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경기도 이천,여주 지역을 중심으로 종돈공급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오제스키병이 상존하고 있던 경기도 이천지역내에 있는 종돈 생산농가들이 출하를 기피하고 있거나 출하를 당분간 금지하고 있어 국내 GP종돈과 F1종돈의 공급이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오제스키병이 발생되어 전국적으로 양돈농가에 피해가 극심해질 것을 염려하여 종돈판매를 보류 및 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일반농가와 종돈장을 중심으로 한 돼지 사육환경과 위생문제를 비롯하여 일부 양돈농가에 자돈과 종돈 공급이 단기적으로

부족, 고가격으로 종돈을 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이와같이 농장에서 오제스키병이 금년에 만연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PED(유행성 설사병)와 오제스키병의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일부 농장에서 항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선 방역관계자들과 경험있는 농장들의 조언에 따라 죽은 돼지의 내장을 갈아 먹어 전체 농장에 오제스키병이 심하게 번지게 되었는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월 냉장육 수출 268톤 수출

일본 대장성의 통계에 의하면, 95년 3월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41,054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수입량을 살펴보면, 냉장육이 14,092톤(26.2% 증가), 냉동육이 26,962톤(2.1% 증가)이었다.

냉장육은 대만이 7,579톤(16.6% 증가), 미국 5,844톤(39.8% 증가)이 수입되어 양국의 대일본 냉장돼지고기 수출량이 증가했으며, 우리나라는 3월 한달동안 268톤의 냉장을 수출한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특히 미국이 약 6천톤대의 냉장육을 비롯하여 대일 돼지고기 총수출량이 14,092톤으로 지난 94년 9월 이후 사상 2번째 많은 양을 기록했다.

냉동육은 대만 14,792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13% 증가했으며, 덴마크는 7,262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한들 조용희 교수 추모비 건립

지난 5월 21일 경북 칠곡군 석정면 포남동 조씨 문중 선영에서 일가 친지 및 제자, 동료교수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故 한들 조용희 교수의 추모비 제막식이 있었다. 고 조교수는 지난 41년

경북 칠곡군 석정면 포남동 1402번지에서 출생하여 건국대학교(축산학과), 영남대학교 대학원(경영학 석·박사)을 거쳐 지난 1972년부터 영남대학교 축산경영학과에서 축산물 마케팅과 관련한 후학을 양성하였다.

또 지난 1980년~1982년까지 프랑스 액스·막세이Ⅲ대학 경영대학원에서 객원교수와 프랑스 국제농업경영연구소 객원교수로 수학하였고,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남대학교 대학원, 계명대학교 대학원, 영남대학교 대학원등에서 후학을 양성하였다.

고인은 생전에 한국축산경영학회장, 한국식품유통학회 부회장, 한국경영학 이사, 미국 마케팅협회 회원 등을 역임하였고,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축산물유통산업의 발전과 인재육성에 헌신의 정열을 다하셨던 분이다. 고인의 주요 저서는 영문서적을 비롯한 「최신 축산경영학」외 다수가 있으며, 발표된 논문이 400여편에 달하는 한국 축산발전의 숨은 공로자였다.

「돼지, 이렇게 기르자」 출간

(사)신농민강좌 연구회(회장 성진근)에서 농민을 위한 기술서적발간의 일환으로 “돼지, 이렇게 기르자”를 지난 5월 1일에 출간했다.

이 책의 내용은 한국 양돈산업의 현황, 핵심양돈기술의 실제, 양돈장의 설립과 운영 및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대책 등인데 양돈 초보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양돈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실무위주로 집필했다.

이 책의 저자는 김동식(신해종돈장)·김성훈((주)제일종축)·손광수((주)퓨리나 코리아)·정정수(충북대)·한병우((주)제일종축)씨 등 5명이다.